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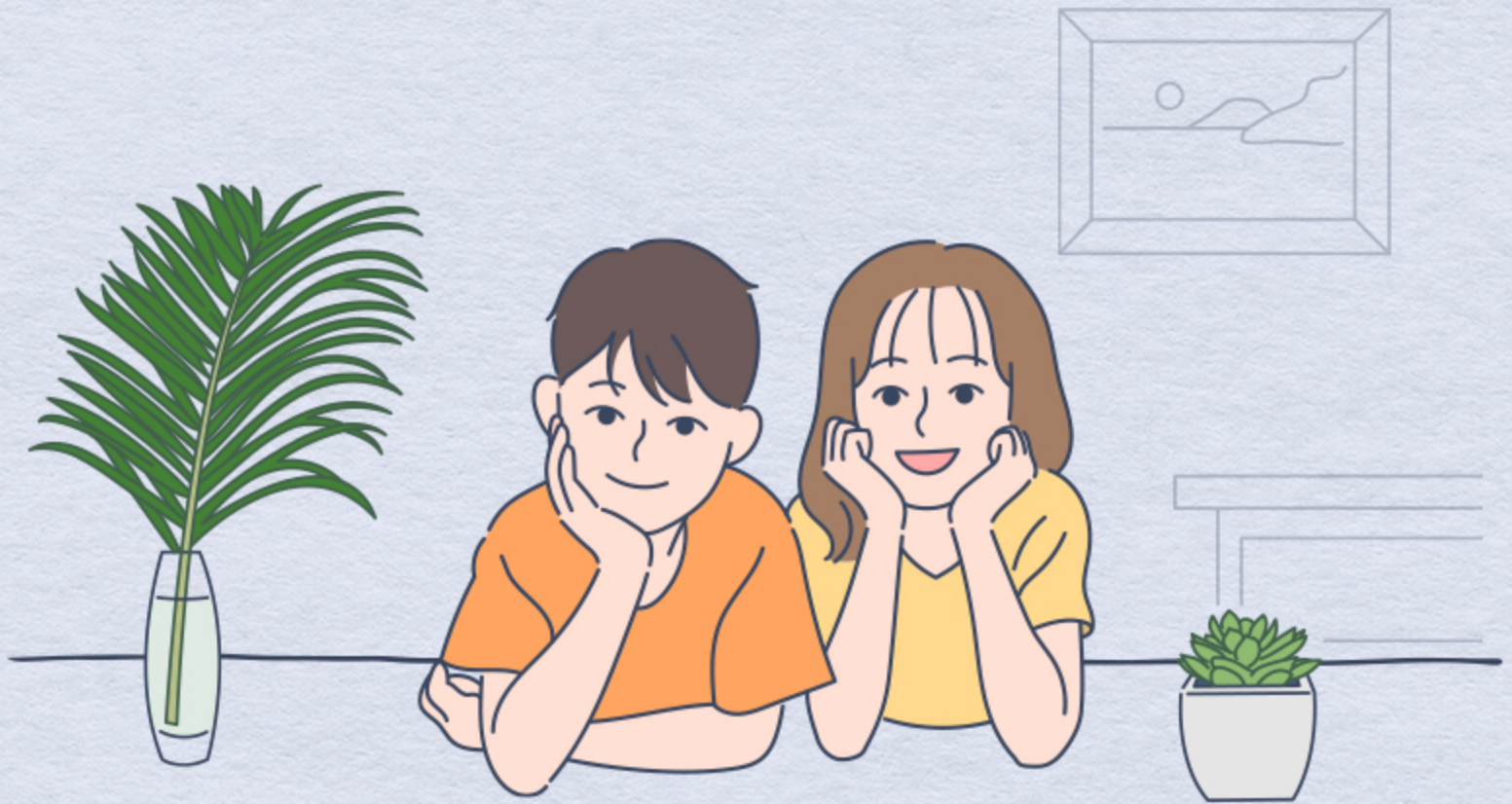
아동·청소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

주거권*을 보장받고 있나요?

*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



아동·청소년의 성장,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



아동·청소년의 건강, 교육, 성장, 발달, 전반적 인권과
복지 수준은 그들이 거주하는 주거의 상태에 달려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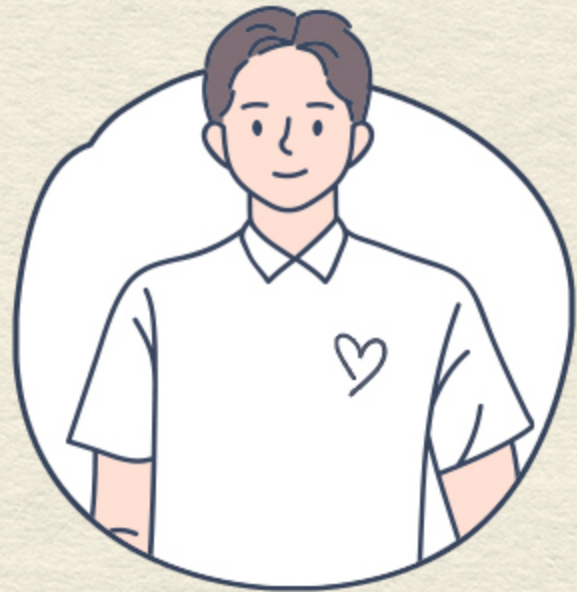
(UN헤비타트, 2015)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아동·청소년들에게
주거환경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습니다.

아동·청소년 주거환경 인식조사 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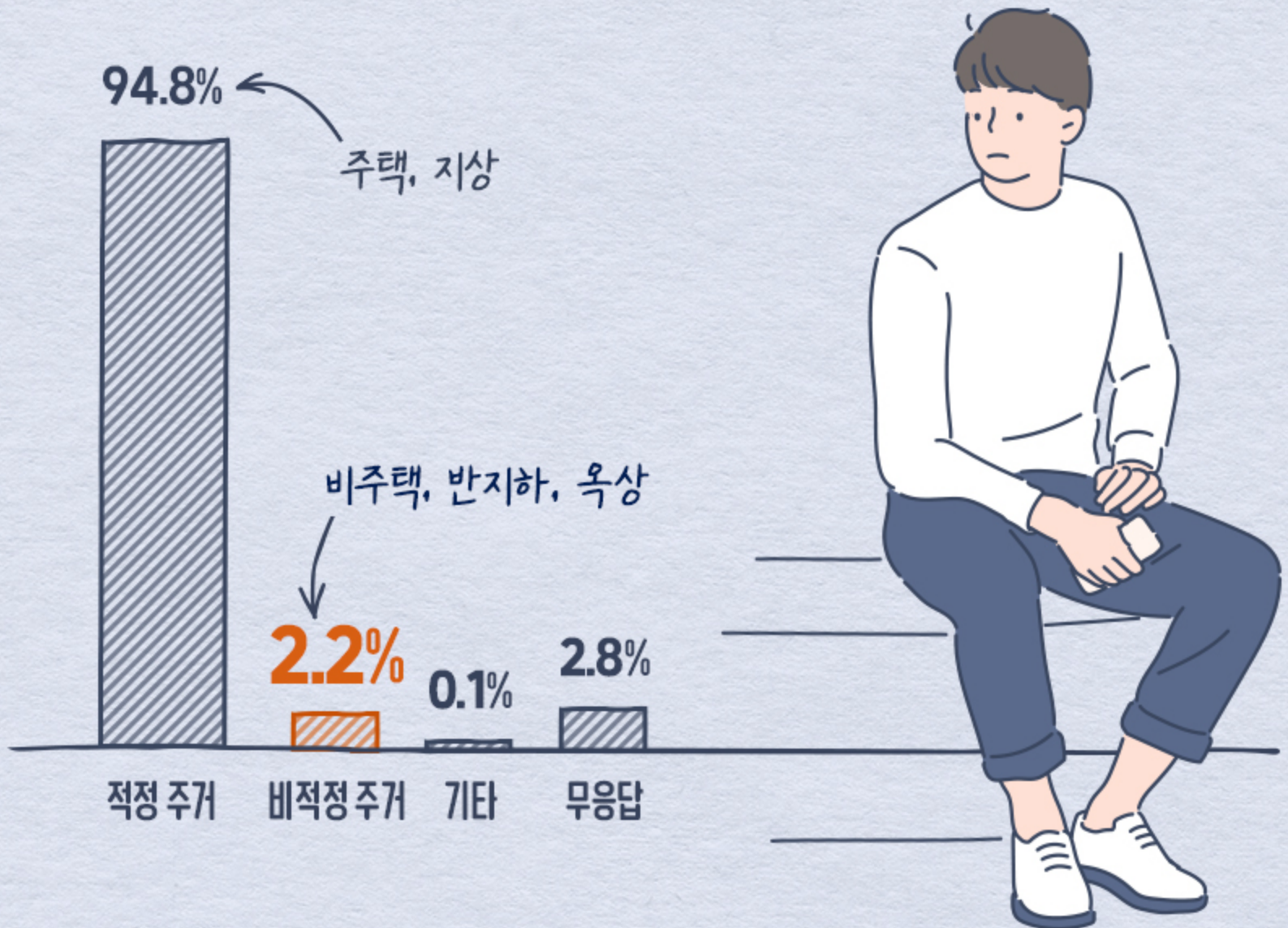


초·중·고 재학생
6,000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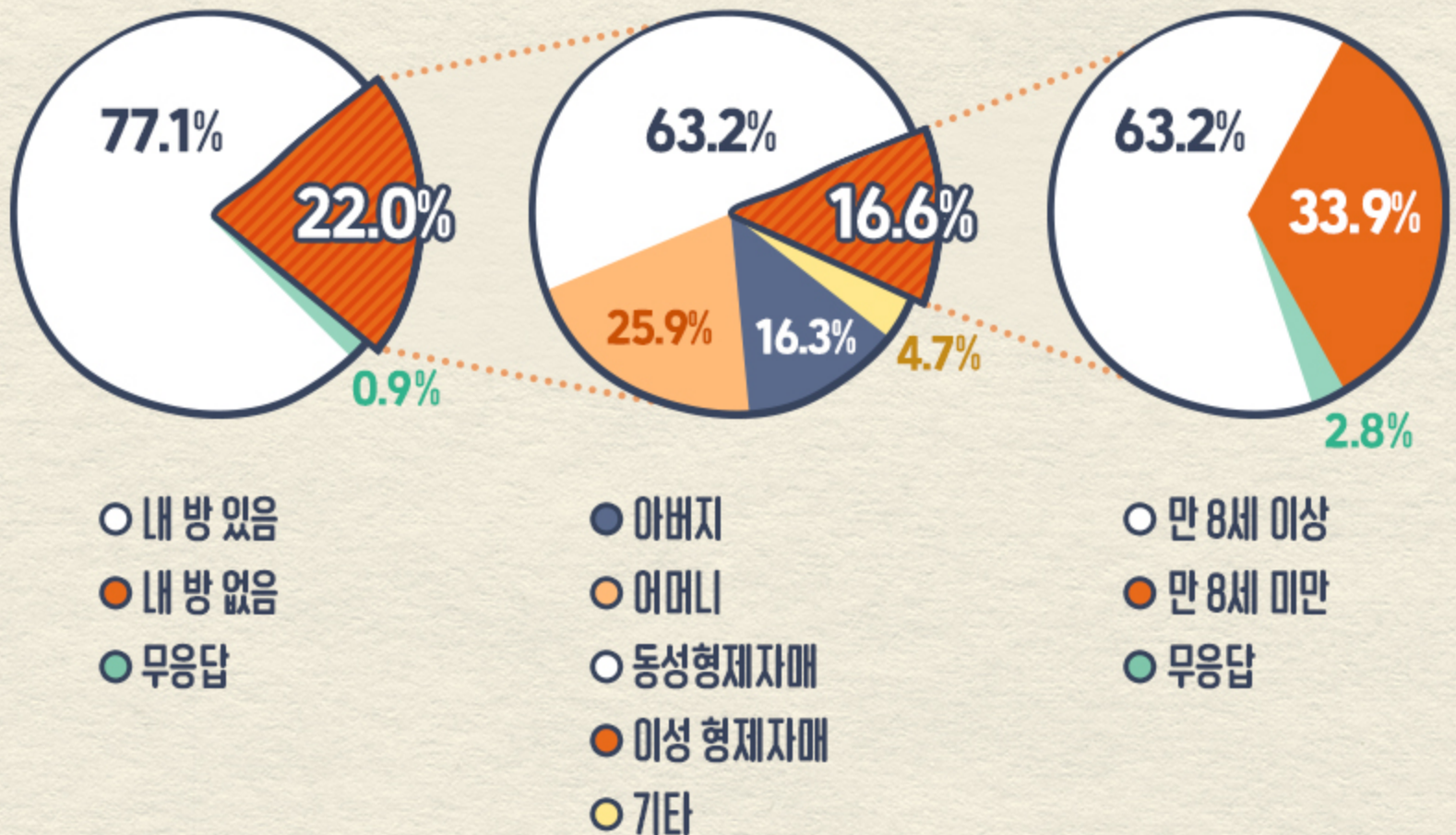


청소년쉼터 거주 청소년
300명

그 결과, 응답자의 2.2%는
주택이 아닌 건물이나 반지하, 옥상(옥탑) 등
집의 종류나 위치가 비적정한 환경에서 거주한다고 응답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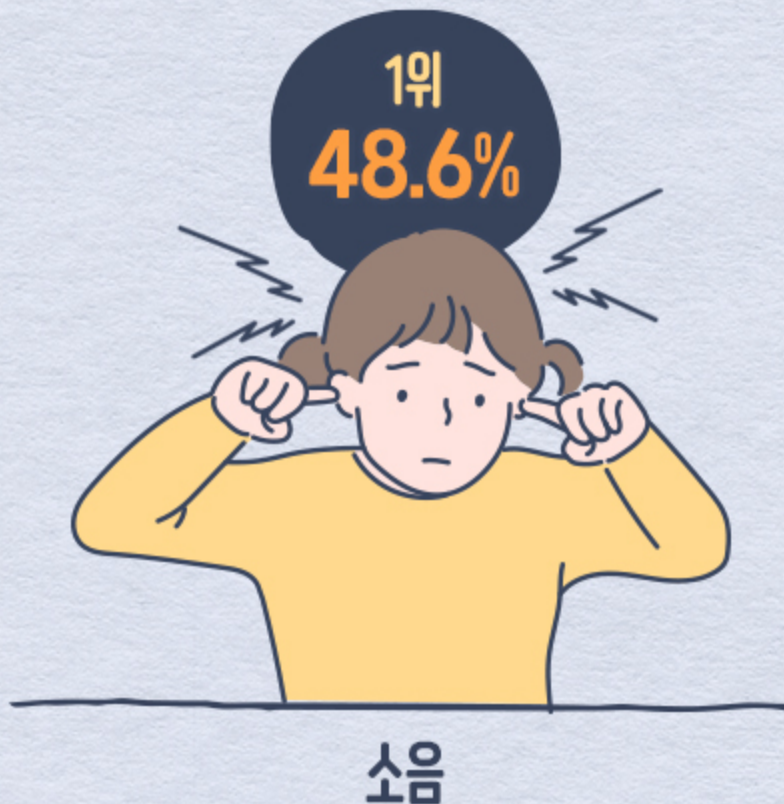


또한 '내 방이 없다(침실)'는 응답은 22.0%로 나타났으며,
침실 분리가 필요한 8세 이상 이성의 형제자매와
방을 함께 사용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습니다.



현재 살고 있는 집의 상태를 평가한 결과
실내·외 소음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
 집 내부의 곰팡이, 해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

집의 전반적인 상태 평가



- 2위 곰팡이 (17.8%)
- 3위 해충 (13.8%)
- 4위 화재시설미비 (12.2%)
- 5위 소방차 출입문제 (8.2%)
- 6위 주거침입위험 (5.4%)
- 7위 화재위험재질 (4.7%)

아동·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

주거환경은 아동·청소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



01

심리/정서

적정하지 않은 주거환경, 또는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
아동·청소년은 또래에 비해
우울·불안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았습니다.

"뭐든 맡겨줘
가뿐히 해낼테니"



적정 주거환경

"의욕도 없고..
이건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"



비적정 주거환경

02

정상체중(BMI)

주거환경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

적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 쉼터, 비적정 주거환경에 있는 아동·청소년보다 정상체중 비율이 높았습니다.

주거환경과 정상체중 비율



적정주거
50%



쉼터거주
43.8%



비적정주거
38.9%

특히,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아동·청소년은
숙면·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고,
 진로성숙도 역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

아동·청소년은 '주거약자'입니다

모든 아동·청소년은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.

주거환경은 이들의 성장,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필수설비미달, 구조성능환경미달, 최저주거기준, 과밀 등
주거환경의 문제를 아동·청소년의 관점에서도
모니터링해야 할 이유입니다.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

「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: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」

김지연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·선임연구위원)

김승경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·선임연구위원)